

이느 날 40세 가량의 남자 분이 휠체어를 타고 밤늦게 응급실을 방문했다. 그 분은 5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하체를 못쓰게 된 반신불수 환자였다. 이런 분들에게는 대개 하지에 가는 신경의 이상 뿐만 아니라 방광이나 외성기에 가는 신경에도 이상이 생겨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 곤란과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수가 흔하다.

이 환자도 척추 손상에 의한 성기능 장애가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최근에 임포텐스의 치료로 널리 이용되는 발기유발제의 음경해면체내 자가주사요법으로 치료하다 합병증의 하나인 발기가 장시간 지속되는 음경지속발기증이 생겨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런데 치료 도중에 환자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환자는 성기능에 관련된 매스컴의 기사 내용을 보거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성기능 장애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그냥 시중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주사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걱정이 앞섰던 문제는, 건강을 주제로 한 매스컴의 바람직하지 않는 보도와 이런 약제들이 이렇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해열제나 소화제처럼 약국에서 자유로이 판매가 가능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다.

정상 남성도 어느 정도는 왜소 콤플렉스와 자신의 성기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런 불안감은 성경험이 적은 젊은 남성에게 더욱 많은데 여기에 더하여 총각시절에 친구나 선배에 의해, 그것도 대개는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직업 여성과 관계를 시도하다 실패로 끝났던 추억이 있었다거나, 요사이의 X세대는 결혼을 할 상대자와도 혼전에 사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이 시도가 썩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우에 이런 불안감이 더 심해져 결혼까지 망설이며 자신의 성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종종 있다.

만일 이런 환자들이 결혼 생활에 필수적인 사랑이나 이해심, 상부상조의 협력을 이룩하여 이를 극복하지 않고, 단지 발기유발제에 의존하여, 소화제를 복용하듯이 쉽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마약 같은 습관성 의약품이나 마리화나, 본드와 다를 바가 없고 또 여기에 돈을 향한 깨끗하지 못



매스컴과 건강

이 충 현 · 경희의대 비뇨기과학교실

한 상술이 작용을 한다면 그 부작용은 일파만파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행히 요즘에, 모든 매스컴에서 건강을 중요 주제로 앞다투어 다루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약품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쓸 계획인 것 같아 이런 잘못된 관행도 바로 잡히리라 기대를 해보지만 불안감 또한 감출 수 없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사화되거나 방송되는, 도가 지나친 엄청난 양의 건강에 관련된 보도를 보면 우리 국민 모두를 의사, 한의사, 약사로 만들고도 남을 만한 분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덕택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 나라 국민은 각자가 어느 정도 의학에 관해 일가견(?)이 있어, 가끔 병원에 위문 온 방문객들이 환자나 그 옆의 보호자들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못 할 이야기를 무심코 하고, 실제로 많은 환자가 이런 책임지도 못할 잘못된 권유나 충고에 의해 갈팡질팡하다가 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주변에 있는 일간지나 주간지 하나를 펼쳐 보자! 각종 피부 연고제로부터 고혈압제, 소화제, 관절염 치료제 등의 무수한 약품이 미사여구와 함께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약이란 칼의 양면과도



같이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막연히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귀퉁이에 무지무지하게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이런 선전에 익숙해진 환자가 선전에 있는 몇 마디의 글을 읽고 자신의 증상과 동일시하여 슈퍼마켓에서 라면을 사듯이 약을 고르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만일 의사와 약사와 상의해서 쓸 약이라면 무엇보다 많은 돈을 들여가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천연색 광고를 할까? 약 포장 내부에 있는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해 읽어보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단지 오용 및 남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무책임한 면책 수단이나 면죄부가 아닐런지...

그러나 이만해도 보아 넘길 수는 있다. 약품이라기 보다는 식품에 가까운 물질들이 마치 종래의 비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처럼 걸치장되어 선전되고 있고,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능과 관련되어 신비라는 단어와 함께 선전되는 물리 기구들, 그리고 염연한 의료행위인 포경 수술을 마치 발톱 깎는 것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간단히 할 수 있고 더욱이 복지부허가와 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고 선전하는 것을 보고는 그만 입이 딱 벌어져 다물 수가 없다.

실제로 비뇨기과 의사로서, 자가 포경 수술 기구에 의한 부작용을 직접 보기도 했고, 비뇨기과 의사들 모임에서 듣기도 했으며, 또 이를 막고자 학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의사와 자

가포경수술 회사와의 알력 정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선전들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공급자의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마치 영화 광고나 구두 광고에서나 있을 법한 선전 문구가 전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에 비슷한 물건에까지 가능한지?

어떻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신문이나 잡지에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선전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될 수 있을까? 그 선전비가 아니면 신문사나 잡지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상업주의로 변명이 될까? 더욱 아이러니칼한 것은 그런 선전의 바로 윗면의 기사에는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몇몇 전문가의 기사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 식품의약품이 최근에 프로스타트론이라고 하는 전립선 비대증의 온열치료기를 승인했다. 이 프로스타트론이라는 기계는 최근에 개발된 기계가 아니라 오래 전에 개발되어 유럽이나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계이다. 그러면 첨단 과학 분야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미국이 왜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는 기계를 이제야 비로소 인정했을까?

여기에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미국은 그 나라 국민의 건강에 관계되는 일은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기계나 약품이 자국이나 외국에서 개발되면 아무리 좋은 보고들이 쏟아져 나와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이 약품이나 기구의 안정성과 효과를 판명한 후에 비로소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구의 설립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최소한 우리 나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약품이나 기구들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정해서, 멋모르고 짊어진 몇 마디 선전 문구에 현혹되어 건강을 잃거나 고생하는 환자의 수는 최대한으로 줄여 보리라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삶의 질과 연관되어 세계화로 나가는 국민소득 1만불의 국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고 바람이 아닐까? **72**